

윤석열 “차기 국정운영 동력은 당원”

국힘 ‘살리는 선대위’ 첫 회의 김종인·김병준·이준석 참석 정권교체·청년 키워드 강조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선대위 명칭과 관련해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힘은 나라를 죽이기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살리는 힘”이라며 “나라와 정의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되살리라는 게 지금 국민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첫 회의엔 윤 후보와 함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다소 냉랭한 기류를 노렸던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도 서로 인사를 나눴다. 김병준 위원장이 먼저 김종인 위원장에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윤 후보는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당이 더욱 강해지고 튼튼한 조직을 갖게 돼, 차기 정부를 맡았을 때 강력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당원들로부터 얻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높기 때문에 윤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선대위 운영이 이사분란하고 잡음 없이 진행돼야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민주당의 국가주의, 대중주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대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윤 후보,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와 포퓰리즘의 결합의 실체를 드러내고, 국민을 살리는 대안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한 뒤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려면 다리가 찢어지는 상황이 생길거다. 따라올테면 따라와보라”고 자신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스트류커바 디나 씨와 노재승 씨도 참석했다.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디나 씨는 어눌하지만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한국에서 교육과 출산까지 거치며 산 지 9년이 지났다. 사할린 한인교 수 많은 워킹맘,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앞으로 일자리·교육·육아·사할린 한인 이주인 정책이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씨는 과거 SNS에 올린 5·18 민주화운동, 정

규직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여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과거 사인(私人)이었을 때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글들”이라며 “말과 행동에 무게감을 느끼고 좀 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공동선대위원장을 성상할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시대준비위를 이끄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도 불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선후보 9일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회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대선 후보 관련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한 행위를 안내했다.

선관위는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편승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선거 관련 각종 문의는 국민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매타버스 행선지마다 지지율 오른 이재명...민생투어 효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민생투어 효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총 8주 일정으로 기획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는 지난 달 12일 부·울·경을 시작으로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전북까지 돌며 반환점을 돈 상태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매타버스 방문 직후 해당 지역의 이 후보 지지율은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후보가 부·울·경을 방문할 당시 실시된 조사(지난달 11~12일)에서 이 지역 지지율은 전주(22.1%)보다 3.6%포인트 오른 25.7%를 기록했다. 그 다음 주 조사에서 부·울·경 지지율은 33.2%까지 올랐다. 2차 행선지였던 충청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지난달 19~20일 조사에서 충청권 지지율은 44.1%로 전주(28.8%)보다 15.3%포인트 높고 있었다. 조사 기간 내내 이 후보는 대전·충남을 돌고 있었다.

이 후보가 4박 5일간 머물며 ‘공’을 들었던 호

부·울·경 33.2%, 충청권 44% 윤석열 컨벤션효과 감소 분석도

남 지지율도 소폭이었지만 상승했다. 이 후보가 광주·전남에 머물 당시 실시된 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은 65.6%로 전주(64.4%)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선대위는 민생투어라는 콘셉트가 지역민심의 반향을 이끌었다고 자체 평가한다. 아울러 대구·경북(TK), 강원·제주, 서울, 경기·인천 등 향후 남은 지역에서도 ‘매타버스 바텀’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매타버스를 따라다니며 이 후보의 현장 일정을 생중계한 ‘매타버스’ 유튜브 채널의 지지층 결집 효과도 일부 봤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 변동 흐름이 꼭 해당 지역에서의 민심 정보에만 아니라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5일 대선 본선에 등판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의 컨벤션 효과가 서서히 사라진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타버스가 아직 들리지 않은 서울에서도 이 후보 지지율은 11월 5~6일 27.8%에서 30.9%, 34.4%, 36.0% 등 매주 상승세를 띠었다.

이런 가운데 선대위 내부에서는 매타버스가 반환점을 돈 만큼 일정 콘셉트에도 다소 변화를 주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시장에서의 즉석연설, 지역민들과의 간담회, 2030 세대와의 대화로 이어지는 ‘루틴’에서 탈피, 일정에 역동성을 더 가하자는 주문이다.

선대위는 이번 주말 이 후보의 고향인 TK를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를 고려해 방문지역 선정은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 인용한 KSOI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고사 작전?

김종인 ‘사퇴’ 언급 압박 시동 국민의당 ‘자력 갱생하라’ 반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등판하자마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대선 포기’를 공개 거론하며 양측의 신경전에 불을 지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양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힘을 합쳤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안 후보가 독자 노선을 천명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 스스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안 후보를 향해 “합리적인 사람이면 일반 국민 지지도로 봐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까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중도 사퇴’를 압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 역시 안 후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단일화가 선결 또는 필수 불가결한 조

건이 아니다”라며 “(당과 안 후보 사이에) 거간꾼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대금 해당행위로, 일벌 백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SNS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김창국을 한 사발 들이건 건가”라며 “국민의당은 무늬만 정권교체인 국민의힘 눈속임에 거들 일 없으니,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노력을 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가 운영 능력이 없어서 대선에서 패배하면 준비 없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의 책임이자, 기록권에 안주한 국민의힘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양측 연대의 향방은 안 후보의 지지율에 달렸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여야 박빙 구도가 이어진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연대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안 후보에게 서울 중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출구’를 마련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h2>장성 토지(매매 분양)</h2>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2>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h3>010-6670-9800</h3>	<p>6층, 7층 (총분양 140평)</p> <p>감정(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0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3>010-6670-9800</h3>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p> <p>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table border="1"> <tr><td>광주</td><td>서구 금호동 종원펠리스(아파트)▶ 감정가2억8천->2억8천(12/7)</td></tr> <tr><td></td><td>북구 장정동(토지)▶ 감정가 1억8천 -> 1억8천 (12/8)</td></tr> <tr><td></td><td>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12/10)</td></tr> <tr><td></td><td>북구 용봉동(다가구빌딩)▶ 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td></tr> <tr><td></td><td>남구 월산동(주택)▶ 감정가 3억5천 -> 2억 (12/21)</td></tr> <tr><td></td><td>북구 두암동(상가건물)▶ 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td></tr> <tr><td></td><td>광산구 삼계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td></tr> <tr><td>전남</td><td>담양군 금성면(농지)▶ 감정가17억 -> 17억 (12/7)</td></tr> <tr><td></td><td>담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9억7천 -> 4억3천 (12/9)</td></tr> <tr><td></td><td>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 19억 -> 8억5천 (12/13)</td></tr> <tr><td></td><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2억1천 -> 7천6백 (12/16)</td></tr> <tr><td>시외</td><td>충남 당진시(근린시설)▶ 감정가 42억 -> 7억1천 (12/7)</td></tr> <tr><td></td><td>전북 군산시(근린상가)▶ 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td></tr> </table> <h3>062-382-5500</h3>	광주	서구 금호동 종원펠리스(아파트)▶ 감정가2억8천->2억8천(12/7)		북구 장정동(토지)▶ 감정가 1억8천 -> 1억8천 (12/8)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12/10)		북구 용봉동(다가구빌딩)▶ 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 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 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계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전남	담양군 금성면(농지)▶ 감정가17억 -> 17억 (12/7)		담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9억7천 -> 4억3천 (12/9)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 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2억1천 -> 7천6백 (12/16)	시외	충남 당진시(근린시설)▶ 감정가 42억 -> 7억1천 (12/7)		전북 군산시(근린상가)▶ 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광주	서구 금호동 종원펠리스(아파트)▶ 감정가2억8천->2억8천(12/7)																											
	북구 장정동(토지)▶ 감정가 1억8천 -> 1억8천 (12/8)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12/10)																											
	북구 용봉동(다가구빌딩)▶ 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 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 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계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전남	담양군 금성면(농지)▶ 감정가17억 -> 17억 (12/7)																											
	담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9억7천 -> 4억3천 (12/9)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 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2억1천 -> 7천6백 (12/16)																											
시외	충남 당진시(근린시설)▶ 감정가 42억 -> 7억1천 (12/7)																											
	전북 군산시(근린상가)▶ 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